

KIDS RUNNING · 4 회 차

키즈러닝 엄마 영차!

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찾자리.

이번에 함께 볼 두 편

『인재전쟁2』 2부 · 그리고 최태원 회장 강연

다큐가 던진 질문 → 강연이 내놓은 답 · KBS 다큐인사이트

DATE

2026. 09. 09

수요일 오전 10:30

NOTE

추석으로 앞당김

본래 셋째 주 → 둘째 주

CYCLE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다음 자리 · 10월 21일 (수) 예정

이번 자리를 한 줄로

이번엔 질문을 던진 영상과 답을 내놓은 영상을 나란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다큐 「인재전쟁2」 2부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 의사 체험관에 줄 선 아이들, 학원 숙제만 칼같이 하는 초 등학생, “나는 가장 쉽게 대체될 것”이라 말하는 현직 의사. 그다음 **최태원** 회장이 답을 내놓는데, 놀랍게도 “**공대에 보내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올 영상 두 편

1편 · 질문

「인재전쟁2」 2부 — 코리아 딜레마

아직도 ‘대학 입시’에만 찢찢매는 대한민국, 반도체 공학 인재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

KBS 다큐인사이드 · 2026년 5월 21일 방송

youtu.be/-VrzRGXVZ6s 47분

2편 · 답

AI 시대의 미래와 대한민국 생존 전략

최태원 회장 특별강연 — 앞 6분은 다큐 PD 인터뷰, 30분 강연, 마지막 12분은 관객 질문

KBS 다큐인사이드 · 2026년 5월 28일 방송

youtu.be/sy4Z15wIxcA 47분

BONUS ·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에 데이터를 파는 20대 스타트업

28 · 28 · 24살 세 사람. 한 명은 고교 자퇴, 한 명은 대학에 안 갔습니다 · EO Korea

youtube.com/watch?v=favRMy-9XNk 19분

보실 때 팁 · 두 편 합쳐 1시간 34분. 설거지하면서 틀어봐도 괜찮아요.

· **순서대로 보세요.** 다큐가 답답하게 끝나는데, 강연이 그 답답함을 받아 이어갑니다.

· 시간이 없으면 → 다큐 **28:10** + 강연 **20:36**. 이 **6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 **못 보고 오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같이 짚어요.

의사 면허증을 받고 나오는 다섯 살

다큐는 아주 조용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의사 체험관의 아침

01:36

의사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 **누적 방문객 21만 명**, 이용 연령은 **만 세 살부터**입니다. 아이들은 가운을 입고 수술을 흉내내고, 체험이 끝나면 **기념 의사 면허증**을 받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비싸지만 학부모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의사가 제일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나중에 애가 커서 의사가 되면 진짜 좋죠.”

“오늘 저희 세 명 왔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꼭 의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체험관에 온 엄마들



숫자는 바뀌었는데, 결과는 그대로

03:46

올해 입시에서 **의대 지원자는 30% 이상 줄었고**,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모든 지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구요. 그런데 결과는 예년과 같았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은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 거의 100%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수험생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내가 졸업할 때도 그 산업의 열기가 계속될까?” —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이, 한국에도 도전자는 있습니다

05:21

- **국산 AI 반도체** — 대한민국 최초의 서버형 AI 반도체. 같은 성능에 **소비전력은 훨씬 적게**. 창업 6년 만에 기업가치 **3조 원**을 넘겼습니다.
-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 2018년에 시작했는데 **첫 투자를 2024년에야**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휴머노이드는 시장이 있어?” 올해 초 엔비디아 젠슨 황이 이 회사의 용접 로봇을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없어야 될까?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엔비디아도 20년 전엔 언더독이었습니다. 언더독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양한 인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현 · AI 반도체 기업 대표 · 05:57

“제가 가장 먼저 대체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토록 보내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술실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09:06

로봇 수술은 이미 상용화됐고, 이제 AI가 그 로봇을 보조합니다. 예전엔 집도의 한 명에 보조 인력이 두세 명 더 필요했는데, 지금은 **둘이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진단 쪽은 이미 아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현직 의사의 말 10:39

“저 같은 분야에서 저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담담합니다. 의대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술 논문을 읽고 발표시키는 일**을 아주 많이 하는데, “**그건 사람보다 확실히 AI가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아예 **지금의 의학 교육이 곧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10:08

그런데 로지를 살린 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12:42

머신러닝 엔지니어 폴에게 반려견 **로지**가 있었습니다. 5년 뒤 로지는 **피부암** 진단을 받았고, 수의사들은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폴은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했습니다 — **AI로 로지의 DNA를 분석해 암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한 대학 연구소가 그 아이디어에 힘을 보태 **로지 전용 백신**을 만들었고, 종양은 줄어들었습니다. 로지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글을 쓰고 학부생 세 명이 같이 매달렸어도, **제가 한 일을 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렸을 겁니다**.”

— 폴 · 14:18

 이 장면은 **2편 최태원 강연에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14:48

“자격증이 있어서 푼 게 아니라,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풀었다**” — 오늘 이야기 전체를 압축한 장면입니다.

미국은 이미 학위 대신 실력

다큐 중반부는 “그럼 저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여줍니다. 좀 놀랍습니다.

고졸 10대를 뽑겠다는 500조 기업 16:05

기업가치 **500조 원** 규모의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지난해 **대학 졸업생이 아닌 고졸 출신 10대를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 능력만 보고 뽑는 **실력주의 펠로십**입니다.

브라운대학교에 합격했던 **마태**는 대학 대신 팔란티어를 선택했습니다. **월 800만 원**을 받으며 4개월 인턴을 거쳤고, 성과를 낸 두 사람은 올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전부를, 어느 학교가 당신을 뽑아주느냐에 걸지 마세요.”

— 19:14

경영진 중에 대졸이 한 명도 없는 회사 20:30

시장 조사를 AI가 대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 **창업 2년 만에 기업가치 1조 원**. 자기소개가 이렇습니다 — “저는 **20살입니다.**” “**21살.**” “저는 **17살입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시뮬레이션이라는 문제를 붙잡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4분의 1쯤 되네요.”

“AI 도구 없이 지금 같은 성과를 내려면 **사람이 5배에서 10배는 더 필요했을** 겁니다.”

데이터를 사고파는 마켓을 만든 **아비 파텔**은 22살, 주립대 중퇴자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엔 “문제아”로** 불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바일 게임을 하던 아이였거든요. **22:41**

실리콘밸리의 피터 틸은 **2011년부터** 대학을 중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젊은 창업가에게 투자해 왔습니다. 이른바 **틸 펠로십**. 지금까지 창업자 **300명 이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24:58**

그리고 다시, 우리 이야기

다큐의 마지막 20분이 가장 아픔니다. 우리 집 이야기라서요.



수능을 만든 사람이 말합니다

26:34

1993년, 주입식 공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된 수능.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험의 설계자 **박도순** 교수가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원래 수능 의도대로의 수능도 아니고, 탐구를 묻는 것도 아니고 —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수능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요.”

— 박도순 · 수능 설계자



대치동 키드 유나

28:10

유나의 학창 시절 기억은 대부분 **학원**입니다.

“대치동에 살 때는,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늘 나에게 **학원을 보내는 존재.**”

(엄마) “쉬는 날이 없죠. **아이가 아프면 안 되죠.** 그러면 학원비가 날아가니까.”

전쟁 같은 입시를 끝내고 재수까지 했지만, 대학 수업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기인데, 나는 **교수님이 2~30년 전에 공부하시던 걸 배우고 있네** 싶었어요.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었죠.”

— 유나 · 29:18



“20세기 DNA를 아직 못 버린 거죠”

30:18

수능 점수로 학생을 뽑지 않는 대학의 **염재호**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20세기에 교육받았고, 사회 전체가 20세기에 형성된 틀 안에서 살고 있어서 **20세기 DNA를 아직 못 버린 거죠.**

과거 시험 보는 게 최고의 덕목이던 양반 사회 — 그걸 함부로 쉽게 못 버립니다.”

“기존 틀을 말없이 따라가지 않는 애들이 **‘문제야’라고 낙인**을 찍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이 틀은 문제가 없는 거야?**”

장래희망이 100개예요

다큐에서 가장 밝은 장면이, 동시에 가장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초등학교 교실

31:53

선생님이 묻습니다. “장래희망이 여러 개인 사람 손들어 볼까요?”

“여러 개예요.” “다섯 개요.”
“60개요.” “아니 100개요!”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큐는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잇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은 현재 교육 구조에서 **초등학교까지만 유효합니다.**”

— 32:26

“학교 숙제는 안 해도 학원 숙제는 칼같이 합니다”

32:56

“입시 학원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아이들은 **녹초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원래 뭘 좋아했는지 찾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른의 사정을 아이들의 미래와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큐가 남긴 문장

44:16

“AI가 수능 수학의 모든 문제를 **단 2분 만에** 풀어내는 지금,
우리의 교육은 12년간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다큐는 여기서 끝납니다. **답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린 강연이, 바로 이 질문을 이어받습니다.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지능'을 만든다

다큐가 던진 질문을, 반도체와 AI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1년 만에 이만큼 03:44

다큐를 만든 정윤재 PD가 1년 만에 중국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작년엔 **검지도 못했던 휴머노이드**가 올해는 저보다 빨리 뛰고 있고, 날지 못했던 드론이 날고 있고, 작년엔 실험실에서 찍었던 로봇들이 이제는 **로봇 마트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 정윤재 PD

공장이 만드는 것이 달라집니다 09:03

“사회가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젠 지능을 만듭니다**. 인간이 지능과 같이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 최태원

물어보는 AI에서, 대신 해주는 AI로 09:33

	리즈닝 AI (지금)	에이전틱 AI (곧)
내가 하는 것	물어봅니다	시킵니다
AI가 하는 것	답을 줍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비유하면	백과사전	비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면서는 **에이전트를 잘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10:39

그런데 —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번 강연에서 가장 뜻밖인 대목입니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좁혀진다고 합니다.

10배가 9%가 되는 계산 12:13

사람과 사람의 능력 차이를 **10배**라고 해봅시다. 못하는 사람 10, 잘하는 사람 100. 그런데 AI가 사람에게 얹어주는 능력은 **1,000** 정도라는 게 최 회장의 계산입니다.

지금	AI를 모두가 쓰면
10 vs 100 1000% 차이	1010 vs 1100 9% 차이

“9% 조금 뒤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조금 더 쓰거나 노력을 조금만 더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얘기니까 — **능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 최태원

그래서 인재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13:44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한 분야를 깊게 판다 → AI가 거의 다 커버합니다	여러 분야를 두루 알고 설계한다 → 제도·법·시스템을 새로 만든다

자격증의 위력도 약해집니다. 16:24 — 전문가만 갖던 지식과 기술을 AI가 다 커버하고 나면, “AI를 쓰시겠습니까, 전문가를 고용하시겠습니까”라는 선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편에서 본 로지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직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17:25

“**열 개의 잡을 할 수 있죠.** 혹은 열 개 회사에 가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다 — **이제 그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 최태원 · 18:25

네 가지 근육 ① ②

이번 강연의 심장입니다. 다큐가 던진 질문에 대한 최 회장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① 생각하는 근육 20:36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훈련은 생각하는 훈련보다 **시험을 잘 치는 훈련**,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정도의 지식은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건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이런 시험은 없어질 겁니다.” 21:07

대신 필요한 건 —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까,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을까”**를 묻는 힘입니다. (1편의 수능 설계자가 “차라 리 없애는 게 낫다”고 한 그 시험입니다.)

② 적응의 근육 21:39

변화가 너무 빨라서, 올해 옳았던 선택이 내년에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창업했다 망할 수도, 배운 게 쓸 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실패를 딛고 또 다음에 적응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음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최 회장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AI 세상에서는 어차피 내 능력이나 남의 능력이나 비슷해지니까, 실패로 주눅들 일이 없다”**고요. 앞의 **9% 계산**이 여기서 위로가 됩니다.

네 가지 근육 ③ ④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③ 공감의 근육 22:10

AI가 아무리 잘해도 **공감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최 회장은 솔직해집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형이거든요. **저도 상당히 T인데...** 미래를 생각해 보니 (T인 게) 별 소용이 없네.”

— 최태원

④ 바디 스킬 23:11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포츠든, **내 몸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로봇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되게 즐거워할까요?”

 **여기서 잠깐** — 키즈러닝이 왜 아이들과 달리는지, 이 네 번째 근육이 설명해 줍니다.

그럼 어디서 배우나 23:41

“현재 있는 교육 기관은 **그걸 가르쳤던 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친구를 많이 만나야 공감 능력이 생기고, 몸으로 하는 것도 거기서 자라니까요.**

다만 배움터가 학교만은 아니라는 것 — **회사도, NGO도, 여러분끼리 만든 클럽도, 직접 차린 회사도** 배움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UMMARY

두 편이 만나는 곳

다큐가 아프게 보여준 것과, 강연이 답으로 내놓은 것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근육	1편이 보여준 것	2편이 말한 것
①	생각하는 근육	수능 설계자 —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시험은 없어질 겁니다”
②	적응의 근육	22살 중퇴 창업자, “문제아”였던 아이	실패해도 다음 선택으로
③	공감의 근육	로보틱스 팀 — 문제 해결자 · 소통가 · 창의성	AI는 공감이 제한된다
④	바디 스킬	직접 금속을 만지고 조립해 본 아이들	몸으로 해내는 건 남는다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학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셋 다 — 집에서, 운동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랍니다.

근육	지금 우리가 하는 것	대신 해볼 수 있는 것
① 생각	문제를 빨리 정확히 푼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묻는다
② 적응	틀리지 않게 조심한다	틀려 보고, 다음 걸 고른다
③ 공감	혼자 공부한다	친구를 만나고, 마음을 읽는다
④ 몸	앉아서 한다	달리고, 그리고, 연주한다

나라 이야기 — AI 네이션의 조건

강연 후반부는 “대한민국은 어때야 하는가”로 넘어갑니다. 아이 교육 이야기와도 이어져요.

조건	무슨 뜻인가
스피드	“느려지면 잡아먹힙니다.” 거의 중국만큼 가야 한다
스케일	작으면 무시당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이프티	사람이 얼마나 안 다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세 가지 필수 조건 31:53

- **인프라** — AI 팩토리를 많이 지어 AI를 만들고 수출한다
- **AI for All**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에이전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 **AI 시티** — 규제 대신 **일단 해보는 실험 구역**. “안 해보고는 모르는 겁니다”

💡 나중에 질문 시간에 최 회장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학교가 AI 시티가 될 수 있습니다.**” **43:15**

학교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라**, AI를 직접 겪어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찾는 데**가 된다는 뜻입니다. 1편의 로보틱스 동아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죠.

“우리는 약간 두려워하는 게, **그거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자**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되죠? **스피드가 안 됩니다.**”

— 최태원 · 33:56

관객이 물었고, 회장이 답했다

강연 마지막 12분. 우리가 궁금해할 질문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물어줬습니다.

 “중국은 의대 포기하고 공대 가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35:35

— 청주 오송고등학교 교장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정도의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AGI가 오면 중국이 가진 장점도 결국 희석된다는 것. 다만 **그때까지 10~15년을 버티는 게 문제**이고, 엔지니어는 밖에서 데려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의사가 많은 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의사로 사는 것이 엔지니어보다 훨씬 운택할 것 같다 —

저는 이제 그 인식을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08

“AI 시대에는 수학자가 의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니다.” 38:38

 “우리 아이는 뭘 전공해야 하나요?”

39:08

— 고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 · 오늘 우리 질문과 가장 가까운 질문

“10년 뒤에 뭐가 남아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대신 **전인적(全人的)인 훈련**을 권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도 되십시오. 창업도 해서 회사도 만드십시오.** 이 모든 멀티잡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 그거 갖고 평생을 살겠다 — **이게 제일 위험한 지금의 선택**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거기 매몰되진 마십시오. **AI가 대체하기 가장 쉬운 타겟이 될 것입니다.**”

— 최태원 · 40:41

 **마지막 당부 45:20** — “공대생만이 AI 시대의 인재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데, 전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인간과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 그것이 인재입니다.**”

스물여덟 살 셋이 엔비디아에 데이터를 판다

안 보셔도 괜찮은 보너스입니다. 다만 1편에서 본 “미국 20대 창업자들” 이야기가 —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	나이	학교는?
김조우 대표	28	과학고 떨어지고 6개월 만에 자퇴 → 검정고시 → 중국 유학
한송호 CTO	28	수학·경제만 좋아해 성적 나뻐다가 → 서울대 → 개발 독학 → 당근마켓 3년
손범수 CPO	24	대학에 가지 않음 . 17살에 특허 2개 · 논문 3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관찰이었습니다

01:33

AI에게 “**상자를 여는 사람**”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상자가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 “아, AI가 물리적인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시각과 청각은 이미 폰에 다 있으니 **빠진 퍼즐은 촉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쓸 만한 하드웨어가 없어서 — “**그냥 우리가 만
들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 고객사는 엔비디아 (아이작 생태계 9개 제품 중 하나로 공식 파트너) · **이번 분기 예상 매출 약 10억 원** · 여수
산업단지에서 **은퇴하는 숙련공의 손기술**을 데이터로 남기는 일을 합니다 **11:42**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

- 스탠퍼드 로보틱스 센터에서 “**Tactile is the future**” 발표 **06:06**
- 논문 저자들에게 **무작정 메일** → 엔비디아 답장률이 높았다 **06:37**
- 미팅이 잡히자 **3일 밤새워 데모 준비**. 보드가 안 와서 중국 전자상가에서 케이블을 구해다 **비행기 타기 한 시간 반 전까지
공항에서 작업** **08:07**

엄마들이 밑줄 그을 만한 말

이 영상의 마지막 3분이, 어쩌면 오늘 자리의 진짜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고, 결혼하고 —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해야 되는 걸 다 하고 나서야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에 안 간) 범수를 보면서, 내가 꼭 그걸 다 하고 나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 16:46

**“정상적인 루트, 비정상적인 루트 이런 거 없이,
다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구나.” 17:17**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봤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회사 갈 걸’ 하고 후회할까, **‘이거 그냥 한번 시도해 볼 걸’** 하고 후회할까.

저는 후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인생 긴데 망해 봤자 얼마나 망하겠냐.”**

— 17:47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천재일 거라 생각했는데, 와서 얘기해 보니 **한국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별로 없어요.** 이걸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예요.”

— 18:18

로봇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말.

“다 나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지 —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대체가 아니라, 오늘 할 일을 인수인계하고 내일 할 일을 찾는 거.” 16:16**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는 결국 로봇이랑 같이 살게 될 텐데, **우리가 가르친 로봇이랑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15:15**

낯선 단어 미리보기

가볍게 훑고 가시면 영상이 훨씬 편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리즈닝 AI	물어보면 답해주는 AI. 지금 우리가 쓰는 ChatGPT 같은 것.
에이전틱 AI	시키면 직접 해주는 AI. 비서에게 일을 맡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AGI	사람만큼 똑똑해진 AI. 이게 오면 사람 사이 능력 차이가 줄어든다는 게 오늘의 핵심.
AI 팩토리	상품 대신 지능을 찍어내는 공장 . 데이터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럴리스트	여러 분야를 두루 아는 사람. ↔ 스페셜리스트(한 분야 전문가)
멀티잡	직업을 여러 개 갖는 것. AI로 일이 줄어들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AI 시티	“일단 해보자”는 실험 구역. 규제를 잠시 풀고 먼저 써보는 곳.
피지컬 AI	화면 속이 아니라 몸을 가진 AI. 로봇·드론·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 로봇. 팔다리가 있어서 사람 도구를 그대로 씁니다.
언더독	이길 것 같지 않은 약자. <i>“엔비디아도 20년 전엔 언더독이었다.”</i>
펠로십	학위 대신 실력으로 뽑아 키우는 프로그램. 팔란티어·틸 펠로십이 그 예.
LLM	Chat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글 읽고 쓰는 걸 사람보다 잘합니다.
촉각 데이터	손이 무언가를 잡을 때의 힘과 감촉 을 숫자로 모은 것.
콜드 컨택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연락하는 것. 오픈그래프랩스가 엔비디아를 만난 방법.

오늘 차를 따라가며 나눌 이야기

차 네 잔의 흐름을 따라 대화도 깊어집니다. (향기 → 탐색 → 확장 → 회고)

1 첫 잔 · 향기 마음이 먼저

- 의사 체험관에서 “셋 중 하나는 의사가 됐으면” 하던 엄마들 — 솔직히 어떠셨어요? 불편했나요, 공감됐나요?
- 네 가지 근육 중에서 **내가 가장 약한 것** 하나만 솔직하게 꼽는다면?
- 최 회장도 “저도 T라서 공감이 약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나요, 불안이 됐나요?**

2 둘째 잔 · 탐색 머리로 들어가서

- 현직 의사가 “**내가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그 길을 권할까요?
- AGI가 오면 능력 차이가 **9%로 줄어든다**는 계산. 믿어지시나요?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요?
- “**20세기 DNA를 아직 못 버렸다**” — 내 안의 20세기 DNA는 뭘까요?
- 로지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었지만 답을 찾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우리 아이에게는 무슨 뜻일까요?

셋째 잔부터는 우리 집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내려옵니다.

3 셋째 잔 · 확장 우리 집으로

- 초등학생들은 장래희망이 **60개, 100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큐는 **“이 다양성은 초등학교까지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몇 개인가요?
- **“학교 숙제는 안 해도 학원 숙제는 칼같이 한다”** — 우리 집은 어떤가요? 하루 중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이 것** 인가요?
- 네 가지 근육 중 **세 가지는 학원에서 안 가르칩니다.** 우리 집에서는 언제 자라나요?
- 22살에 대학을 중퇴한 창업자는 어릴 때 **“문제아”**로 불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말고 다른 길”을 말한다면, **나는 어떤 얼굴이 될까요?**

4 넷째 잔 · 회고 나에게로

- “그 사회는 **내 삶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 이 질문에 나는 뭐라고 답할까요?
- “내가 꼭 그걸 다 하고 나서 할 필요가 있었나” — **나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 네 가지 근육 중 **내가 이번 달에 하나만 키운다면** 어느 것?
- 오늘 집에 가서 아이에게 던질 **질문 한 문장**을 정한다면?

아이랑 나눌 이야기 집에 가서

같이 드린 **아이용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요. (수채화 7컷 · 장마다 질문 하나)

컷	장면	아이에게
1	로봇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아이	“네가 로봇한테 하나 시킬 수 있다면 뭘 시킬래?”
2	사람과 AI의 키가 비슷해진 그림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도 괜찮을까?”
3	강아지를 안고 컴퓨터를 보는 아이	“네가 정말 고쳐주고 싶은 게 있어?”
4	모자를 여러 개 쓴 아이	“너는 커서 몇 개가 되고 싶어?”
5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달리는 아이	“넘어졌는데 다시 해본 적 있어?”
6	친구를 안아주는 아이 (로봇은 보고 만)	“로봇이 못 하는 건 뭘까?”
7	달리고, 그리고, 노래하는 아이들	“몸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집에서 이렇게 던져보세요

- “너는 커서 몇 개가 되고 싶어?”
→ 다큐 속 아이들은 60개, 100개라고 했어요. **하나로 좁히지 마세요.**
- “어떤 형이 강아지가 아팠는데, 의사가 아닌데도 고쳤대.” → “너는 뭘 고쳐보고 싶어?”
- “로봇한테 뭘 하나 시킬 수 있으면 뭘 시킬래?” → 대답을 듣고 “그럼 너는 그동안 뭘 할 거야?”로 이어가면 성공입니다.
- “AI가 못 하는 게 뭘까?” → 아이 대답이 어른보다 나올 때가 많아요.
- “오늘 몸으로 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 네 번째 근육은 이 질문에서 자랍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마세요. 다큐의 결론도, 강연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 “아직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TAKEAWAY

**"결국 인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인간과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것이 인재입니다."**

다큐는 **답답한 질문**으로 끝났고, 강연은 **네 가지 근육**으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좋은 성적표**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한 건 생각하고 · 다시 일어서고 · 마음을 읽고 · 몸을 쓰는 힘이었어요.

넷 중 셋은 학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요. 같이 달리면서요. 영차. 🍲

다음 자리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2026년 10월 21일 (수) 예정

문의 · 알림 : Instagram @kids_running_kr DM

본 자료는 참석자 학습용입니다. 외부 공유 · 재배포를 삼가 주세요.

© 2026 Kids Running